문화세계의 창조
교훈 학원의 민주화 사상의 민주화 생활의 민주화

대학주보

경희대학교 대학주보사
발행편집인 조영식
주간 이석우
편집장 오홍섭
인쇄인 김준배

서울캠퍼스(우:130-701)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1 ☎(961)0095, (963) 5849 FAX(963) 5849
수원캠퍼스(우:449-701) 경기도 용인군 기흥읍 서천리1 ☎(741) 5702 (교환: 2056, 2860) 직통 (0331) 280-2056, 2860 FAX (0331) 280-2238

제1016호 〈주간〉 1993년 3월 15일 (월요일) THE UNIVERSITY WEEKLY (1955. 10. 27 제3종우편물(가)급인가 1964. 1. 등록번호 다-12) (1955년 5월 12일 창간)

양캠 등록금 협상 본격화

서울 요구안 확정

양캠퍼스의 등록금협상이 본격화됐다.

서울, 수원 총학생회는 작년 등록금협상과 관련한 합의서 이행을 촉구하는 동시에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 올해 요구안을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 총학생회와 학교측은 지난 11일 '제2차 등록금협상'을 부총장실에서 가졌다.

이번 협상에서는 지난 3월 학교측이 제출한 93년 예산서와 교육과정심의위원회(교심위)의 안건, 취업대책 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총학은 예산서가 예년과 다를 바 없이 미흡한 내용이므로 추가경정예산서와 92년 결산서 공개를 요구했으며 학교측은 5월중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교심위의 요구안건중 D학점 재수강은 학점처리의 전산화 설비가 완료된 후 시행할 것을 합의했으나 교수채용, 교양과편 등의 문제에는 양측이 이견을 보였다.

취업대책으로 학생측이 취업정보실을 총장 직속기구로 확대·개편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계속 하기로 했다.

한편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사무국장 윤종군 사학·4)는 방학중 설문조사를 통해 수렴된 학생들의 의견을 토대로 ▲교육재정확보 ▲교육제도 및 여건개선 ▲교육복지환경개선 ▲취업대책등 4개부문에 걸친 1차요구안을 정리했다.

이후 등록금 협상에 대한 논의는 17일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통해 최종요구안을 결정한 후 구체화 될 전망이다.

수원 운동본부 발족

【수원】 지난 11일 오후3시 체육대 세미나실에서 열린 등록금협상에서 학교측의 등록금 인상률 협상 절대불가입장과 총학생회측의 92년 결산서 제시요구가 맞서 협상이 결렬되었다.

이날 협상에서 총학측은 92년도 교재부 합의서의 이행점검과 등록금의 민주적 책정을 제기하였고 이를위해 92년 결산서 및 93년 예산서의 공개를 학교측에 요구하였다.

이에 학교측은 결산서 공개여부를 밝히지 않은 채, 등록금 인상률 협상 절대불가 입장을 고수해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했다.

이에 앞서 9일 총학은 제2차 화대운영위와 간부총회를 소집하여 교육재정확보투쟁의 4대목표로 ▲등록금 부당인상 반대및 민주적 책정 ▲교육여건 및 환경 개선 ▲국고보조금 GNP대비 4%확충 ▲사립학교법 개정 등을 수립하고 미등록자 3차등록까지 연기, 리본달기, 서명운동 등참능의 행동지침을 확정했다.

또한 총학은 이후 설문조사, 1단대요구안 취합능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나갈 방침이고 오는 17일 '등록금 민주책정과 교육재정확보, 교육대개혁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발족식을 가질 예정이며 모금운동과 서명운동을 같이 진행할 계획이다.

민족의학 말살정책 규탄대회

약사법 개정철회요구, 본교서 횃불 시위도

전국 한의과대학 학생회연합(전한련)은 지난 9일 오후 7시 본교 노천극장에서 '정부의 민족의학 말살정책 규탄과 국민보건권 쟁취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번 대회는 지난 5일 통과된 약사법개정철회와 민족의학사수를 외치는 전국 11개 한의과대학 1천5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학생들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의료질서를 문란케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약사법시행규칙은 철회되어야 하며 법한의학계는 한의학이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결의대회를 마친 학생들은 본교 정문앞에서 횃불시위를 하였으며 다음날인 10일에는 대국민 홍보전을 벌였다.

한편 대전대 한의과대학 학생 7명은 9일 민족의학사수와 범의학계 대동단결을 촉구하며 대한한의사협회에서 단식농성을 벌이다 12일 농성을 풀었다.

전한련은 앞으로 홍보활동을 통해 약사의 한약조제권의 부당성을 알리고 한의학 발전을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본교직원 백혈병, 헌혈 기다려

본교 중앙계 최종률 부주사가 급성골수염 백혈병으로 지난 5일 성희의료원에 입원했다. 이에 행정직원들이 4백60여만원을 모금, 지난 12일 전달했으나 아직 수술비용 산정조차 되지 않은 상태이며, 현재 혈액형이 O형인 사람 10여명의 대기가 필요하다.

근무형태 변경철회 안돼

노조, 원상복귀촉구 법적대응시사

서울캠퍼스 관리직의 변경된 근무형태에 대한 원상복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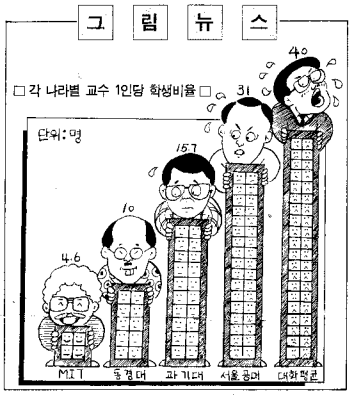
학교측은 구두를 통해 근무형태변경이 단체협약사항임을 인정하는 동의서를 노조측에 요구했으나 노조측은 정식적인 단체교섭을 조합에 제의할 것을 주장하며 조속한 원상복귀를 촉구했다.

권영환 노조위원장은 학교측의 동의서요구와 관련해 "법에 명시된 사항을 학교 측이 굳이 동의서로써 문서화하려는 의도는 일방적인 근무형태변경에 대한 명분을 찾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동의서를 이유로 원상복귀하지 않는다면 법적대응도 불사할 것임을 시사했다.

학교측은 지난 3일 노조측에 보낸 공문을 통해 근무형태변경에 관한 조처를 일단 철회, 이 문제를 단체교섭을 통해 결정할 것임을 시사했으나, 현재까지 단체교섭 제의를 하고 있지 않다.

한편, 관리직 근무형태변경이 원상복귀되지 않음으로 인해 도서관 등 학내 건물의 청소·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림뉴스



서울자치예산 분배 확정

총학 2천50원, 단대 2천4백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는 1학기 자치회비 예산안을 확정했다.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는 학생1인당 자치회비 7천3백원중 총학생회에 2천50원을, 단대학생회에 2천4백원을 분배, 사업집행을 꾸려나가도록 했다. 또한 운영위는 총인원 5백명 미만인 가정대, 사범대, 약대, 체대, 음대를 약소 단대로 규정하고 1인당 2백50원을 총학생회사무국장과 각단대장의 합의하에 지원하도록 했으며 지원금은 단대 공간부족해결과 건물확보 등에 쓰이게 된다.

총학생회산하 특별위원회 중 종여학생회와 동아리연합회,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 조국통일위원회는 자치예산의 17.8%인 1천3백원을 배분받아 사무국장, 재정부장의 참관하에 내부 분배비율을 확정하게 된다.

또한 본교 교지편집위원회인 고황은 1인당 1천3백원의 예산으로 봄·가을 2차례 교지를 발행한다.

한편,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서울지역 총학생연합, 서울지역 동부지구 총학생회연합 등의 회비는 총학생회 예산에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다.

복수전공 희망자 34명

양캠퍼스 교무처는 복수전공 신청현황을 발표했다.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34명의 학생이 지원, 30명이 승인받았다. 복수전공이 의약계, 사범계 및 예·체능계를 제외한 전학과에 대해서 입학정원의 30%이내 인원에 허용됨에 비추어볼 때 복수전공에 대한 학생들의 호응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수원 교차지원이 가능한 복수전공신청에서 서울의 경우 23명(수원 2명 포함)의 학생이 신청하여 21명이 승인받았으며, 수원은 11명(서울 1명 포함)이 신청, 9명이 승인받았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이번 복수전공제 시행에 당초 예상보다 적은 인원이 신청한데 대해 교무처 관계자는 "학생들이 시행 자체를 몰랐거나, 최소 2학기 이상을 더 등록해야하는 등의 규정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 같다"고 풀이했다.

제2차 도서관 공청회 개최

마그네틱카드 사용,휴게실문제 논의

도서관 발전을 위한 제2차 도서관 공청회가 지난 12일 중앙도서관 2층 휴게실에서 열렸다. 권재청(법대 행정 4) 부총학생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공청회는 40명 가량이 참석, 학생들의 질문과 총학의 답변, 의견 발표 등으로 진행되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외부인 출입 방지를 위한 마그네틱카드 출입 실시, 도서관 시청각실 공연장 이용의 부당성, 간막이만으로 휴게실옆 흡연·비흡연으로 구분한 비효율성, 박물관 이전 등이다. 한편 학위논문실이 중앙도서관 내에 신설된다. 기존의 교수협의회실에 마련되는 논문실은 개가열람실에 비치되었던 본교 학·석·박사 학위논문집 1만3천5백여권을 수용하며, 논문집의 전산 조회 시스템도 마련될 예정이다. 현재 카드 목록 작성과 논문집의 세부 분류 작업이 진행중이며 4월중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학기 학사경고 대상자

총 8백12명으로 재학생 20.7%

92학년도 2학기에 평점평균 1.50에 미달하여 성적경고를 받은 학생이 8백12명으로 발표되었다.

양캠퍼스 학적과의 발표에 따르면 서울 2백45명, 수원 5백67명으로 이같은 수치는 총재학생 1만6천8백81명(92년 1학기 기준)의 20.78%에 해당하는 것이다. 한편, 2회연속 성적경고 대상자는 서울의 경우 96명이다. 학년별로는 1학년이 서울 1백20명, 수원 2백97명으로 가장 많으며 2학년 각각 48명, 1백18명이며 3학년 35명, 69명, 4학년 42명, 83명으로 1학년의 수가 51.35%로 가장 많았다. 개정된 학칙에 의해 3회 연속 학사경고를 받으면 제적되며, 재학인원이 정원에 미달될 때 재입학이 허용되는 미등록 제적과는 달리 재입학이 불가능하다.

제9대 동아리 연합회 출범

오는 23일, 신입생 환영 연합공연도

수원캠퍼스 동아리연합회(이하동연)는 오는 23일 오후 4시 학생회관 앞마당에서 '제9대 동연 출범식'을 거행한다.

'동연 전군과 공동체 문화형성'이라는 주제아래 총 3부로 진행되는 이번 전군식은 전체 동아리가 함께하는 신입생환영 연합공연도 마련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응원단, 교정체조부, 검도부, 민족무예단 '태백'의 시범등이 식전행사로 선보이게 되며 출범식 1부는 팔무드, 알디라, 바람개비, 손짓사랑회의 연합공연으로 꾸며진다.

또한 2부에서는 박정문(토목, 3)동연회장등 동연 집행부 소개와 분과별 동아리가 소개되며 소리산하, 알디라, 바람개비의 연합 노래공연, 시낭송순으로 3부가진행된다.

한편 동연은 행사장 양옆에 대자보 게시판을 가설치하여 동아리 선전포스터 전시경연대회도 함께 진행하며 이에 대한 시상식도 마련한다. 또한 이번 전군식에서 포켓트 연구회 'TUSI'의 로켓트 시범발사, VOU의 스크린 상영이 있을 예정이다.

교무회의 워크샵 개최

교무회의 워크샵이 지난 9일 충장공관에서 배태영(외대영문)부총장 주재로 열렸다. 실무부서장, 대학원장, 단과대학장 등이 참석한 이번 워크샵에서는 92년도 업무 확인과 93년도 업무 계획 등에 관한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사 령

오홍섭(입학·4) 任 편집장
엄홍준(외대서반어과·4) 편집장 임기만료로 퇴임
김중석(법학·2), 정미경(정외·2), 박경화(사대무역·2) 안지훈(기계공·2) 任 정기자

이상 3월 15일자

대학주보사

社告

42기 수습기자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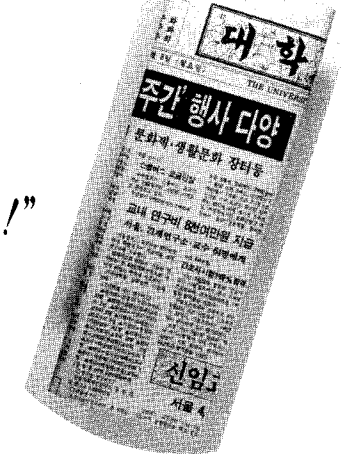
오는 17일 원서접수마감

1. 자 격: 각 단과대학 1학년 신입생
2. 모집부문: 취재기자, 만화기자, 사진기자
3. 모집기간: 93년 3월2일부터 3월17일까지
4. 모집마감: 93년 3월17일 오후5시
5. 원서배부 및 접수: 양 캠퍼스 본사 편집실
6. 전형일시: 서울—3월17일 오후6시 수원—3월18일 오후 5시30분
7. 특 전: 장학금지급, 컴퓨터 실습, 취재·편집기술교육, 졸업 후 취업추천 대학원진학시 장학금지급

대학주보사

대학주보 수습기자 모집〈2〉

"1017번째 대학주보에는
당신이 쓴 기사를 싣고 싶습니다!"



자신이 쓴 기사가 실린 대학주보
그 싱싱한 잉크냄새를 맡아보셨습니까?

"와, 내 기사가…너무너무 기뻐요!"
"형, 이거 어디가서 자랑해야하지?"
처음으로 자신이 쓴 기사가 실린 대학주보를 받아본 수습기자의 얼굴은 발그레 상기됩니다.
'그래, 많이 좋아하렴, 나중에는 두려워질테니까'라는 선배기자의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지만 수습기자는 마냥 좋습니다.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자신이 쓴 글이 활자화 되었으니까요.

지금 곧 대학주보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1017번째 대학주보를 든
당신의 상기된 모습을 빨리 보고 싶습니다.

1. 자 격: 각 단과대학 1학년 신입생
2. 모집부문: 취재기자, 만화기자, 사진기자
3. 모집기간: 93년 3월2일부터 3월17일까지
4. 모집마감: 93년 3월17일 오후5시
5. 원서배부 및 접수: 양 캠퍼스 본사 편집실
6. 전형일시: 서울—3월17일 오후6시 수원—3월18일 오후 5시30분
7. 특 전: 장학금지급, 컴퓨터 실습, 취재·편집기술교육, 졸업 후 취업추천 대학원 진학시 장학금 지급

대학주보사